

엠마우스 공동체 분원 책임자 이양, 코스펠드



2025년 1월 7일, 페트라 마리아 수녀가 이 국제 공동체에서 마리아 알무트 수녀로부터 공동체 책임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관구장 마리아 파울라 수녀가 저녁기도와 식사에 함께 하며 이를 축하했습니다.

2017년부터 알무트 수녀가 책임자로서 미국에서 온 커스틴 마리아 수녀, 한국에서 온 마리 무영 수녀, 인도네시아에서 온 마리아 헨리카 수녀와 함께 공동체의 시작을 일구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인도/방갈로르의 메리 셸비 수녀가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와 유사점을 이해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도전과 함께 상호문화성을 살아갈 수 있다는 모범을 이웃과 그 너머에 보여 주었습니다. 수녀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헨리카 수녀는 어린이를 위한 통합 어린이집에서, 메리 셸비 수녀는 코스펠드 병원에서 간호사로, 커스틴 마리아 수녀는 안네타의 노인 수녀들을 위한 간병 도우미로, 마리 무영 수녀는 요청에 의해 번역 담당으로, 특히 총본원의 필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프레든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본당 공동체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알무트 수녀는 이제 안네타 수녀원으로 옮겨 갑니다. 엠마우스 공동체 수녀들은 수녀의 오랜 헌신에 대해 무엇보다도, 누려 마땅한 수녀의 휴가를 위한 선물 바꾸니로써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녀의 후임인 페트라 마리아 수녀는 처음에는 물하우젠의 전 관구에서 교사로, 나중에는 양성자이자 영적 상담가로 일하다가 예수회 베르트람 디커호프와 함께 운영하던 아쉬람 예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아쉬람은 2003년 그의 주도로 수도회 그룹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아쉬람을 기독교적 삶의 학교로 여깁니다. 따라서 페트라 마리아 수녀는 영적 상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사회에는 몇 가지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마리아 헨리카 수녀는 3월 1일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마리 무영 수녀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으로 떠납니다. 올해는 코스펠드에 오는 순례자가 없기 때문에 변환과 방향 재정립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총행정부 리더십의 지원으로, 우리 수녀회의 창설지인 코스펠드에 살고 있는 국제 공동체는 노틀담 수녀회의 역사를 코스펠드에서 계속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